

## 국가AI전략위, 'AI 시대의 데이터 가치평가' 세미나 개최

- AI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가 기업의 실질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활용되는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8일 (수) 오전 10시 서울스퀘어 16층 회의실에서 「AI 시대의 데이터 가치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AI 대전환 시대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확보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업의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아가 수집·정제된 데이터를 단순 정보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고 활용하는 것이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에 마련(제14조)되어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과(분과위원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백은옥) 주관하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관계부처·공공기관·AI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두 개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현우 더랩아이(The LAB-i) 대표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과 적용'을 주제로 데이터 가치평가와 관련한 국내외 여러 가치평가 기법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근 삼정KPMG 전무가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와 국제 동향 및 데이터 자산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해외 데이터 가치평가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 Reddit IPO('24), Tempus AI IPO('24.), Truveda 투자유치('25), 메타의 Scale AI 인수('25)  
23andMe 파산매각('25) 등

이어진 논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의 활용 촉진 방안, 양질의 데이터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 단순 산업을 넘어 금융 영역(회계기준 등)까지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가 연계·확장되어야 한다는 점, △ 영세 중소·스타트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 △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백은옥 데이터 분과위원장은 “데이터는 AI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AI 기업의 가치가 데이터를 기준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중심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가 성장의 핵심 발판이 되어온 것처럼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그에 걸맞은 독자적인 자산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때”라며, “특히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물적 담보는 부족하지만 뛰어난 역량과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영세 AI·데이터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활로를 열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데이터·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유경태 (02-2224-4131)
		담당자	사무관	최은석 (02-2224-4192)

